

“선배로서 후배 영화인 개성 살려주고 싶었어요”

정우성

영화 ‘나를 잊지 말아요’ 주연배우 겸 제작자



“신인 감독이 배우에게 시나리오를 건네는 것은 당연한 행위라고 했죠. 시나리오를 읽고 나서 개성 있는 멜로영화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화 ‘나를 잊지 말아요’의 남자 주연배우 겸 제작자 정우성(43)을 한 카페에서 만났다. ‘나를 잊지 말아요’는 2010년 단편으로 제작된 동명 영화에 뿌리를 두고 있다. 25분짜리 단편영화 버전에서는 감초 조연 배우인 김정태가 주연을 맡았다. 이윤정 감독은 자신이 각본·연출한 단편을 장편으로 개작해 정식으로 총무로에 데뷔했다.

“이윤정 감독은 영화 ‘놈놈놈’을 하면서 알고 있던 감독이었는데, 살갑게 연락하는 사이는 아니었어요. 시나리오 습작에 대한 관심이 많은 영화계 후배 정도로 알고 있었죠. 이번 영화의 단편 버전을 보고는 톤 앤 매너의 신선함이 느껴졌어요.”

그는 이 감독이 ‘갑히 정우성에게 시나

다”면서 “당시 영화인들끼리 서로 돌볼 여유나 내게 따듯한 조언을 해줬던 선배도 없었다”고 전했다.

이어 “내가 후배에게 스스럼없이 얘기하고 가깝게 대한다고 해도, 나에 대한 강렬한 첫인상은 껴 수 없는 엄청난 느낌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면서도 “내가 신인일 때는 꿈에 대한 소신을 펼치는 데 주저함이 없었다”고 자신감 있는 어조로 말했다.

‘나를 잊지 말아요’는 기억을 찾고 싶은 남자와 기억을 감추고 싶은 여자의 시선을 번갈아 따라가면서 감춰진 비밀이 드러나는 미스터리물 구조를 띤 멜로영화다.

정우성이 영화 ‘내 머리속의 지우개’(2004)에서 알츠하이머병으로 소중했던 기억을 잃어가는 애인(손예진)을 보듬는 역할을 맡았다면, 이번 영화에서는 지워진 기억으로 감정이 메말라 버린 남자를 연기했다.

단편영화 버전 보고 신선함 느껴 제작까지 참여

‘철없는 제작자’라 나에게 의미 있는 작품 도전

리오를 전해주기 힘들다’는 말을 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큰 괴리감을 느꼈다고 한다. 선배로서 후배 영화인의 재기 발랄한 개성을 살려주고 싶었다.

정우성은 “내가 점점 구세대가 돼가고, 신세대와 소통이 단절되면 나 자신도 기회를 잃는 것”이라며 “이런 벽을 깨고 나와야 하는 것은 선배의 역할”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그의 단어 선택 하나, 말 한마디는 막힘이 없고, 부드러우며 유창했다. 영화와 삶, 그리고 사랑에 대한 소신이 누구보다도 뚜렷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정우성은 “어느 순간부터 ‘내 것만 해야지’가 아니라 ‘같이 해야지’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런 일을) 조금 더 일찍 시작했을 수도 있었는데 아쉽다”고도 했다.

그는 또 “신인이었을 때 ‘정춘의 아이론’으로 규정되는 것에 대한 반감이 컸었

기억이라는 단어에서는 비슷한 맥락이 있지만, 두 영화가 바라보는 사랑의 관점과 이야기하는 내용은 전혀 다르다고 그는 설명했다.

“사랑은 모두 판타지라고 생각해요. 판타지적인 사랑을 일상적인 사랑으로 치부하며 직시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죠. 결혼은 늘 바라보고 있지만, 아직 짝을 만나지 못했어요. ‘나를 잊지 말아요’를 통해 첫 영화 제작에 나선 그는 자신을 ‘철없는 제작자’라고 표현했다.

‘요즘 멜로영화가 침체라서 해야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같은 이치로, 요즘 멜로영화를 하는 것이 위험하지는 않을까라는 우려도 노련한 제작자들이나 하는 생각이죠. 자신이 의미를 부여하는 작품이 있다면 시도하고 도전할 때 영화의 다양성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액션보다는 멜로를 오래할 수 있지 않을까요.(웃음)“



오달수♡채국희 열애설

연극 ‘마리화나’·영화 ‘도둑들’ 함께 출연

배우 오달수(48)가 채시라의 여동생이자 뮤지컬·연극 배우인 채국희(46)와 열애 중이라고 한 스포츠·연예 전문매체가 4일 처음 보도했다.

이 매체는 오달수와 채국희가 2008년 연극 ‘마리화나’를 통해 처음 만나 연인으로 발전했다고 전했다. 오달수와 채국희는 ‘도둑들’(2012)에도 함께 출연했다.

오달수는 2001년 전처와 이혼한 뒤 홀로 딸을 키우고 있다. 이혼 사유는 극심한 생활고 때문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오달수의 한 측근은 “둘이 만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사실 관계를 확인해 줄 만한 입장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달수의 소속사 스타빌리지엔터테인먼트의 매니저와 직원들은 현재까지 외부 연락을 끊은 채 어떤 입장이나 해명도 내놓지 않고 있다.

오달수는 1990년 극단 ‘연희단거리퍼’에 입단하면서 배우 활동을 시작했다. ‘올드보이’(2003)에서 악역으로 관객들의 눈을 사로잡은 그는 ‘괴물’(2006), ‘7번방의 선물’(2012), ‘도둑들’(2012), ‘변호인’(2013), ‘국제시장’(2014), ‘암살’(2015), ‘베터링’(2015) 등의 출연작들이 모두 1000만 관객을 돌파하면서 ‘천만요정’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5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 / SBS
⑥ 40 토크쇼 A	00 KBS 뉴스광장	00 2TV 아침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⑦	50 인간극장		1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내일도 승리>	30 KBC 모닝와이드
⑧ 00 아침경제 끝판타임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25 닥터 365 30 아침연속극 <내 사위의 여자>
⑨ 00 신문이야기 들쭉구 쇼+	30 KBS 뉴스	00 TV 소설 <별이 되어 빛나리> 40 여유 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SBS 뉴스 30 SBS 생활경제 50 KBC 생활뉴스
⑩ 20 시사 인사이드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5 별빛가족	40 지구촌 뉴스		
⑪ 30 이제 만나러 갑니다	00 글로벌 과학 다큐멘터리 55 안녕 우리말	00 1대 100(재)	00 일일연속극 <최고의 연인>(재)	10 닥터 365(재) 15 글로벌 문화유산 50 SBS 12 뉴스
⑫ 40 채널A 뉴스 특보	00 KBS 뉴스 12	00 출발 드림팀 시즌2	00 MBC 정오뉴스 20 TV속의 TV	45 닥터 365 55 특목보험특계
① 50 뉴스특급	00 역사저널 그날(재) 50 별빛가족(재) 55 시청자칼럼 우리사는 세상	05 생생정보 스페셜	20 문화사색(재)	
②	00 가요무대	00 KBS 뉴스타임 10 세상의 모든 다큐	05 내꺼야 풀록 30 꾸러기 식사교실	00 순간포착 세상에 이만일어
③ 00 이언경의 직언직설	00 KBS 다큐 1	05 후토스 읽어버린 숲(재) 30 자동공부책상 위키	00 MBC 뉴스 10 독? 독! 키즈스쿨 55 꼬마들 도도	00 3시, 뉴스리더링
④ 30 쾌도난마	00 오늘의 경제 10 신년 기획 우리말 겨루기	00 TV유치원 30 이윤정PD의 요리인류 키친(재) 40 동물의 세계	25 MBC 일일특별기획 <아름다운 당신>(재)	00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 스페셜 30 내 마음의 코레라스
⑤ 50 김승련의 뉴스 TOP10	00 KBS 뉴스 5 2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VJ특공대(재)	00 MBC 이브닝 뉴스	30 SBS 뉴스퍼레이드 50 KBC 저녁 뉴스
⑥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글로벌 24 3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5 날씨와 생활 10 닥터365 15 KBC 생방송 투데이
⑦ 10 먹거리 X파일(재)	00 KBS 뉴스7 30 시사현장 맥 55 집중인턴뷰 이사람	50 일일드라마 <다 잘될거야>	15 일일연속극 <최고의 연인> 55 MBC 뉴스데스크	10 시사터치 따라부담 20 일일드라마 <내려와>(재)
⑧ 20 갈데까지 가보자(재)	25 우리집 골단지	30 2TV 생생정보 플러스 55 1대100	55 MBC 일일특별기획 <아름다운 당신>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스타킹
⑨ 40 채널A 종합뉴스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논	
⑩ 50 채널A 스포츠뉴스	00 청년에게 희망을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 55 숨터	00 월화 드라마 <오 마이 비너스>	00 월화특별기획 <화려한 유혹>	00 청사 25주년 특별기획 <육룡이 나르샤>
⑪ 00 충격 실화극 씨인(재)	00 KBS 뉴스라인 40 창이 인생 프로젝트 생각의 집	10 우리동네 예능쇼	10 신년특집 2016 경제전망 살아나라! 한국경제!	15 불타는 청춘
⑫ 30 개밥주는 남자(재)	35 신년 기획 독립영화관 <펼치면 재기발달>	35 스포츠 하이라이트	40 MBC 뉴스24 50 우리 결혼했어요 스페셜	35 나이트 라인

EBS 1

05:00 EBSe 생활영어 05:30 건강한아침 05:40 성공 인생후반전 06:10 EBS 인문학 특강(재) 07:00 레이디 버그 07:45 로보카 풀리 08:00 똥똥똥 뽀로로 08:10 Why-최고다 호기심딱지 08:20 똥똥똥 유치원2 08:30 두다다공(재) 08:40 똥똥똥 유치원3 08:45 코코코 다코 09:00 크레명의 창의력 팡팡	09:40 토크쇼 부모 <이슈 N 맘> 10:30 최고의 요리비결 11:00 최고의 요리비결 플러스 11:10 다큐 오늘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 뉴스 12:10 아시아 6개국 공동제작 너도 동생이 있니? 13:05 지식채널e 13:10 프레임 인 13:40 즐겨온 수학 EBS MATH 13:50 오스카의 오아시스 14:00 초등 1학년 EBS 겨울방학생활 14:20 초등 5학년 EBS 겨울방학생활	14:40 초등 3학년 EBS 겨울방학생활 15:00 꼬마 철학자 유교 15:15 꼬마가사 마이크 15:30 세계사 시간여행 15:40 모피와 친구들 15:50 크레명의 창의력 팡팡(재) 16:30 코코코 다코(재) 16:45 똥똥똥 유치원1~3(재) 17:30 똥똥똥 뽀로로 17:45 로보카 풀리 18:0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1~3 18:45 신동방통 공룡 슈퍼 18:55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4 19:00 레이디 버그(재)	19:30 EBS뉴스 19:50 극한직업 20:40 다큐 오늘 20:50 세계테마기행 <다채로운의 향연, 중국 구이저우> 21:30 한국기행 <우리들의 천국 강원> 21:50 EBS 다큐프라임 <천불 천탑의 신비, 미안마> 22:45 다규영화 <소년, 달리다> 23:35 프레임 인 24:05 지식채널e(재) 24:10 EBS 인문학 특강 25:00 세계 명작극장 <지구에서 날까지>
---	--	---	---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월 5일(음 11월 26일 丙戌)

子 48년생 좋은 일이 생기게 되는 날이니 매사에 예의 주시하며 정갈히 대기하라. 60년생 정도를 걸으면 해악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72년생 눈에 보이는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 하니라. 84년생 당황하지 말라. 행운의 숫자 : 05, 42	午 42년생 요행이 따르는 하루가 될 수도 있느니라. 54년생 작기에 적용되어야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66년생 상대의 진의를 파악하기 힘들 것이다. 78년생 전혀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허점이 드러날 수다. 행운의 숫자 : 11, 82
丑 49년생 상호 공존할 수 있는 성국을 만들어 가는 것이 능률직임을 알라. 61년생 대안을 마련해야 할 때다. 73년생 별것이 아니니 결코 놀랄 것까지는 없다. 85년생 서둘러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리라. 행운의 숫자 : 54, 33	未 43년생 만사를 차치하고 과감하게 진행해야 할 때이니라. 55년생 니중으로 미룬다면 불가해질 수밖에 없다. 67년생 수고로움이 미래의 보람을 보장하리라. 79년생 평소애 마음먹고 있던 바가 달라지는 원인이 발생한다. 행운의 숫자 : 73, 21
寅 50년생 그 어떠한 새로운 일에도 끼어들지 말라. 62년생 인식의 관점에 따라서 천차만별할 수 있다. 74년생 눈앞의 이익만을 위해서 모여든 이들로 가득 차 있다. 86년생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서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리라. 행운의 숫자 : 85, 55	申 44년생 기존의 판세를 역류시킬만한 결정적인 타개책이 보인다. 56년생 술은 필 때 걸려야 하느니라. 68년생 안일하게 대처했다가는 큰 코 다칠 수도 있다. 80년생 실질적이려면 매사가 순조로울 것이다. 행운의 숫자 : 22, 39
卯 51년생 미리 준비해 둔다면 머지않아 힘이 될 것이니 만전을 기하라. 63년생 성사되는 쪽으로 가다가 잡다. 75년생 천대만상을 이루게 될 것이니라. 87년생 자신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음을 알아야 하느니라. 행운의 숫자 : 46, 75	酉 45년생 조건이 양호하니 자신감 있게 추진해도 된다. 57년생 합리적으로 운용해 나간다면 부가 따를 것이다. 69년생 객관적이지 못해서 사실상 이루어질 가능성은 약하다. 81년생 착각한다면 큰 차질이 빚어진다. 행운의 숫자 : 40, 23
辰 40년생 집착은 발목을 잡을 뿐이다. 52년생 아예 버려야겠다. 64년생 지켜보고만 있을 정황이 아니니 직접 뛰어 들어가 한다. 76년생 일상에 파문을 던지는 이가 있으리라. 88년생 확인을 하는 습관이 절실한 때이다. 행운의 숫자 : 62, 71	戌 46년생 형평성의 유지와 균형 감각이 절실하다. 58년생 기존의 성과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자. 70년생 꽤나 속상할 일이 생기겠으니 마음을 비우고 속 편하게 생각하라. 82년생 열려있지만 화근을 만들어서는 아니 되느니라. 행운의 숫자 : 32, 53
巳 41년생 대박 나겠다. 53년생 이상이 없으니 노파심은 버리고 힘차게 추진해도 된다. 65년생 아무지개 다잡아야 할 시기이다. 77년생 많이 들어났지만 이전 아무것도 아니다. 89년생 길조가 솟아나면 만사여의하리라. 행운의 숫자 : 92, 04	亥 47년생 협조자를 자칭하는 이가 나타나느니라. 59년생 오해의 소지가 충분해 있다. 71년생 전후 사정의 인과 관계를 파악해야만 가득을 잡을 수 있느니라. 83년생 결과 성으로 공을 들인다면 꼭 이루어질 것이다. 행운의 숫자 : 61, 91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